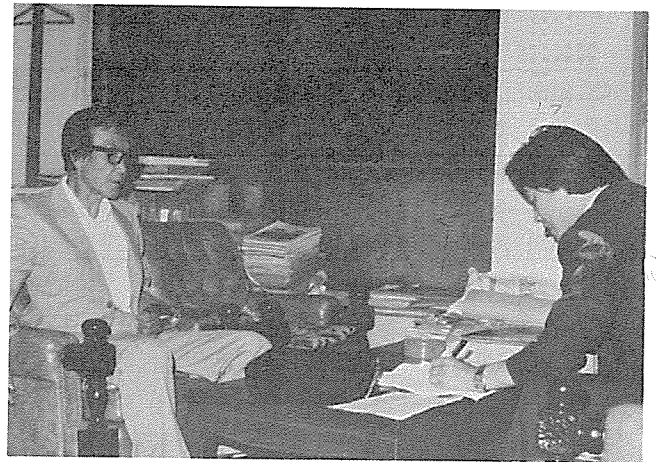


“傳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아니다”



/出生地/평북 의주군 고성면 용산리 806번지/現住所/서울시 東大門區 典農洞698-3號/學歷/中央普通學校·京城高等工業學校建築科(서울工大)/主要經歷/文敎部科學用語制定分科委員·建設部建築士資格審査委員·大韓建築士協會會長·建設研究所審査委員·高大東國大出講·現三星建築設計事務所代表/主要著書/建築用語集·建築構造學·建築施工學·建築積算學·建築製圖·建築工事監理要領·한국건축대계·회감기념논문집 등 다수/主要作品/韓國은행본관 복구설계 감리·한양불산사육·탑골공원 삼일문·공주감영보수공사·철백의총보수정화공사·법주사원통보전보수공사·경주사적지중합조경공사·광하문보수공사·호암미술관설계 등 다수.

◆ 對談 洪 淳 寅 (本誌 편집위원)

□ 丹青의 화려함 보다는 지녀온 歷史와 전통이...

수표동 지전(紙塵) 골목을 들어서면 예나지금이나 분주하기가 변함없다. 제가끔 복잡한 골목을 누비며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골목 중간쯤에 張起仁씨는 살고있다.

그리 넓지않은 房엔 책상 두어개와 작은 응접세트외에는 온통 책과 각종도면투성으로 공간을 메우고 있어 흔히 생각하는 그럴듯한 設計事務所라기 보다는 어느 大學의 교수연구실을 연상케한다. 아니, 이 房의 主人도 그쪽이 더 가깝지만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문득 人生의 한 기슭에서 저토록 골돌히 진정 꾸준히 사는 사람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절로 난다. 그가 연구해온 으리으리한 高樓巨閣의 찬란한 丹青의 화려함 보다는 지녀온 歷史와 傳統으로해서 느끼는 內在된 무게가 그의 房에 차곡차곡 쌓여 있음을 알게된다.

수표동 그 골목을 벗어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노라니 문득 張起仁선생의 房을 메운 손때묻은 듯한 책과 자료들이 그들과 한데 어울려 연상됨은 무슨 까닭일까?

□ 우리建築은 우리손으로 해야한다는 생각에서 出發.

□ 洪 韓國建築 또는 傳統建築하면 으레 張先生님을 기억하게 되고 또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자합니다. 반평생을 오직 우리建築에 큰 뜻을 두시고 一念해오신데에는 어떤 특별한 動機나 目的같은 것이 있을것으로 압니다. 우선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 張 제가 건축전문학교를 나온것이 1938년인가 그렇게 됩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建築관계도 주로 日本人이들 관장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건축이라는 말도없었고 또는 문화재급의 古建築도 日本人들이 관장했죠, 다만 우리나라 住宅에 대해서는 日本人들이 學問的으로 연구만 했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주거생활에 어떤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이나 건축, 즉 한국의 建築은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잘알고 또 우리나라 사람의 손에 의해 연구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發出한겁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傳統이다. 또는 韓國的이다. 하지만 저는 북고적으로 생각해서 과거의 건물을 논하기보다는 앞으로 住生活의 좋은점은 무엇이고 나쁜점은 무엇인가 또는 개량할 점은 어떤것인가를 생각하고 주거생활에 있어서의 人間生活의 모순된점을 건축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것이 있는가등을 생각해서, 過去에 살던집에서 찾아보려는 力이 韓國建築을 專念하게된 動機라고 하겠습니다.

□ 洪 今世紀 初부터 現代建築의 機能至上主義가 世界구석구석까지 범람했고, 우리도 西洋文物이 들어와서 부터 예외없이 소위 洋式建築이라는 이름으로 現代건축을 無批判하게 답습한 부분이 적지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래에와서 우리 傳統建築에도 많은 관심이 일고 있으며 傳統繼承이라는 問題로 많은 연구와 論難도 있었읍니다. 때늦은감이 있지만 張先生님께서서는 建築에 있어서 傳統이라는 問題를 어떻게 理解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통 계승方法이라면 어떤 것이라고 생

□ “曲線의 흐름은 흡사 악기를 가다듬어서 우리의 가락을 듣는 감성이 느껴집니다.”

각하시는지요.

□장 건축에 있어서 전통이라는것을 간단히 정의한다면 古來로부터 써오던 건축물의 形式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서 出發해서, 그렇다고 우리 固有것만을 얘기하는것은 아니고 外來文化를 받아들여 自己化해서 대대손손 물려나가면서 그것이 變型되는 과정이 傳統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의 潮流도 마찬가지로요. 우리주택에서 볼때 순수한 우리의 것만 있는것이 아니죠.

中國사람들은 의자생활을 하고 日本人들은 다다미를 깔고살지만 우리는 온돌방에서 살고 그게 편하잖아요. 바로 그런것이 建築에서의 傳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 계승내지 發展은 우리의 傳統建築가운데서 좋은점은 받아들이고 응용해서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데 저의 경우는 우선 받아들이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건축의 妙味는 어떠한 것이다라고 밝혀지겠는데 그다음에 發展시키는 방법은 제 代에서는 완성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다만 그 냄새만 풍길수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흥 그러니까 그 傳統이라는 것은 오랜생활과 관계되었기때문에 하루아침에 傳統을 만들자고해서 만들어지는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의 努力이 있은후에 그 努力이반복이돼서 나중에 어떤 歷史가 하나의 傳統이 되는거겠죠. 요즘 간혹 뭔가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전통건축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主張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 그런것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이란게 時代的조류도 있고 면면히 내려오는 흐름이 있게 마련인데 어느시대 어느것 하나만을 내세워 이것이 傳統이다 하고 단정하는것은 사실 어려운 과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傳統建築을 論하는데는 여러가지 理論도 많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傳統건축이라고 해서 순전히 우리나라 에서 始發된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속에는 中國의 것도 있겠고 서구라와, 日本의 영향도 받아들였을테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同化시켰죠. 文化

조류가 그런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事務室건물등도 역시 그래요. 미국사람이 짓고 사는것은 그들의 냄새가 나고 아무리 現代式건물을 우리가 지었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우리의 냄새가 풍기거든요. 그런것이 바로 傳統의 繼承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것을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게 아니니까요.

□한국건축은 건축계획적인 면에서 開放的이고 集中的인 것이 특징.

□흥 선생님께서 傳統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自己의 것 즉 우리의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러면 우리 建築, 즉 韓國建築의 特徵을 지적하신다면...

□장 우선 건축計劃的인 면에서 平面을 살펴보면 상당히 開放的이고 集中的인 것을 볼수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을 봐도 방 하나에도 사면에 어디든 낼수 있으면 다냈다는것을 봐도 특징이되겠죠. 다음에 옛건축이 모두 木造건축이기 때문에 耐久年限은 짧지만 그 架構性이라든가 創意性은 나름대로 하나의 長點을 가지고 있죠. 또 그 曲線이라든가 建築에 나타난 美感등은 너무나 韓國的인 감정이나 습관과 유사해서 부드럽고 유연하고 平和로운것이 지어던것에 집착해서강인한 면은 없죠. 外型的인 면에서 볼때도 지붕같은것은 그 曲線의 흐름이 樂器를 다듬어서 한국음악을 듣는 감성이 느껴집니다. 또 位置라든가 하는것도 당시로서는 科學的이었읍니다. 양치바르다든가 하는것 말입니다. 또 위생상으로도 좋은거죠. 이런것이 한국 건축의 특징이되고, 또하나 재미있고 중요한것은 우리건축은 自然과 完全히 同化시켜서 人工을 加하지 않은 人工美있는 집을 지었다 하겠습니까. 즉 自然속에 人工을 造化시켰지 人工으로 自然을 造化시키려는것은 안했읍니다. 이런점이 다른 건축과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이런개념을 가지고 집을 지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建築家들에게 부탁하고 싶은것은 앞으로 좀더 이런 방향으로, 즉 自然과 어울리는 그런집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건축의 특징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흥 네, 共感이 됩니다. 이런것은 建築教育과도 연관이 된다고 하겠는데 예를들어 大學에서는 社會와 직결되는 建築技術이나 工學的인 면으로 치우친것도 사실이고 時間배려도 우리 傳統建築에 대하여 인식한 느낌마저 있습니다. 韓國建築에 대한 教育的 側面에서 効果的인 方法이 있으시다면...

□장 한국건축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게 바로 제 생각인데 한가지 아쉬운것은 한국건축에 관한 資料가 너무 不足해요 자료가 많으면 학생들이 자연히 공부를 하게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등한시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자료수집과 發刊에 힘써야 하는데 個人의 힘으로는 어렵고 國家나 團體에서 주관하는게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와있는 資料라고 하는것이 겨우 사진이나 찍어 내놓고 있는데 이런것들은 建築工學的으로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죠. 樣式같은것은 고고학적으로 연구돼야 할 것이고 우리는 視覺的美學, 審美學的으로 분석해야죠. 한데 이런자료들이 不足하니까 학생들로서는 공부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멀어져 가는것 같아요. 교육 자체가 뭐 시간이 모자란다 그밖에 불편한게 많다고는 하지만 教材自体가 없으니까 그것부터 출판을 해주는 作業부터 서둘러야죠. 또 用語도 딱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것을 알기쉽게 퍼내는 方法도 중요하합니다. 대대적으로 支援해서 퍼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걸 안하면 안됩니다.

□ 丹青의 아름다움을 키워 現代建築에 이용하는것도 단청을 계승발전 시키는 방법이다.

□홍 지난번 5월20일에 韓國建築세미나가 있었는데 張先生님께서 發表하신 丹青에 관한 글을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읽었고 많은 분들의 理解에 큰 도움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機會에 丹青의 紋樣과 그 계승·전승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어떻게 보다 아름답게 할 수 있느냐가 丹青의 연구과제

□장 丹青을 꼭 건물에 칠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것을 장식하는 의미에서 칠(색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古墳속의 벽화의 칠이나 女人들이 가지고 있는 寶石의 장식이나 색깔도 일종에 단청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체는 모두 나름대로 아름다운 색채를 띄고 잘만들어져야 藝術性을 인정받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丹青의 칠을 어떻게 하느냐, 칠을 하려면 現代의 것과 古代的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丹青을 理解하기가 쉬울겁니다.

또 外國의 경우, 프랑스같은데에 가보면 건물의 색상이 펍 조화있고 세련되게 칠해져있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는 다소 투박하고 오히려 칠을 함으로서 보기흉해잔에도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어떻게 보다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 하는것이 丹青의 연구과제 혹은 目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集大成해 보니까 방대하고, 책으로 낼려고 하니깐 내힘으로는 어렵고 생각만 하고있습니다. 해보니까 時代的으로도 紋樣이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최근에 와서는 밝은색, 단색이 많이 쓰이고 있고, 丹青 技術人의 創意性이 現代건축에 어떻게 쓰여질수 있는가 하는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丹青의 色相을 보다 研究하고 아름다움을 키워나가서 現代건축에도 이것을 이용하면 친밀감이 드는 그런 건축을 만들수 있겠지요. 이러한 것도 단청을 계승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 建築用語는 他分野보다 많이 정리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계속 바로잡아야.

□홍 丹青에 대해서는 張先生님 말씀을 몇시간씩 강의를 들어도 모자라겠습니다. 그 외에 선생님은 주로 大學 건축교육에 관계하시면서 建築施工, 構造, 材料등 건축 전반에 걸쳐 用語의 整理, 統一등 많은 업적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더 관심있는 후배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장 나름대로 建築用語의 整理내지 정착에 힘을 써왔는데, 생활화가 잘 안되고있어요. 제 생각은 일반가정 주부도 쉽게 알수있는 건축용어를 써야한다는 것이죠. 그

래서 學生들에게도 外來語 특히 日本말은 되도록 쓰지 말고 좋은 우리말을 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용어를 수집하기 위해 근래에 나온 저서등에서 用語를 찾기도 하고, 새로운 用語는 그 뜻을 바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그런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후에는 日本現場인지 우리나라인지 도무지 모를 정도로 日本말 투성이었죠. 그런것이 요즘은 거의 없잖아요. 他分野에 비하면 건축분야는 아주양호한 편입니다. 또 건축과 토목이 또 다르죠 토목은 건축에 비해 用語의 現代化面에서 훨씬 떨어졌어요.

□홍 用語문제는 國語淳化 運動과도 관련된 것이잖아요.

□장 그렇죠, 관계된 것입니다.

□홍 지금 建築界의 共同관심사는 大型工事 設計施工 一括入札을 규정한 特別규정施行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건축설계라는 固有의 업무와 建築文化창달이라는 觀點에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장 이젠 여러가지 뜻에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時機尚早라고 봐요. 아직은 설계와 시공을 좀더 分類해서 고도화내지 向上시켜야 될줄 압니다. 그후에 일괄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해야 할겁니다. 또 이것을 금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런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발전이 아니라 저해요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좀더 연구해야 될겁니다.

□홍 마지막으로 張先生님께서 초창기에 本協會를 發起하셨고 또 이끌어 오셨는데 오늘날 建築士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과 지위향상 또는 資質문제에 대해 후배건축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장 協會가 초창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發展했죠, 규모나 會員數를 봐도... 한가지 바라고 싶은것은 서울에 건축사가 근 천여명이 되는데 서울支部에서 이것을 모두 다루자니 도저히 어렵거든요 회원이 많은 적들간에 하나의 지부에 불과하니깐요. 그러나 서울지부처럼 커지면 이것을 聯合會라든가 하는 式으로 묶어서 보다 능동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資質은 펍 나아졌죠. 공부도 많이하고 우선 資料가 많으니까 그만큼 우수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10년도 못되서 設計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거죠. 그정도 가지고는 주택이든 뭐든 그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역시 예전과는 달리 자료라든가 그밖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좋으니까 그런대로 되어가지만 간혹 보조원들에게만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점은 곤란하죠. 고쳐야지요.

□홍 오랜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후진들을 계속 돌봐주십시오.